

칼빈주의 바로 알기 맘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은 치명적인 독약:
천주교, 칼빈, 루터 등의 국가 교회의 태동

고후11:13-15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칼빈주의 바로 알기 강해, 왜 하는가?(목사의 책무), 노만 가이슬러, 왜 나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지 않는가? 칼빈 루터 등 종교개혁자들의 무자비한 만행, 유대인, 자기들과 믿음 다른 자들 처형, 왜?

이유를 알고보니 칼빈주의는 칼빈이 만든 것이 아니고 5세기에 살았던 어거스틴의 작품: 어거스틴은 무력을 써서라도 믿음이 다른 자들을 교화하고 강제로 그들을 회개하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국가 교회 통치 체제 확립, 마리아, 유아 세례, 자유 의지 박탈, 연옥, 무천년주의 등 중세 1000년 이상 천주교 암흑시대, 국가교회 통치를 가능하게 만든 장본인

루터, 칼빈, 츠빙글리 등은 자기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어거스틴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당시 세상은 다 전체주의 독재 왕정 시대, 신정 정치, 어쩌면 이들도 그 시대정신의 희생자였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처형해서라도 자기들의 믿음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것 주장, 실행

종교 개혁 당시의 세상: 국가 교회

국가 교회라는 개념(State church) 혹은 교회 국가(Church State)

어거스틴 이후 유럽은 카톨릭 교회가 장악함 무려 1100년 이상, 국교 지정, 다른 자유 없음

(*) 그림 <https://kids.britannica.com/students/assembly/view/193178>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천주교

동유럽은 정교회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 루터교: 독일, 스칸디나비아 3국(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 핀란드

1534년경, 영국, 헨리 8세의 이혼 요구, 성공회(영국 국교회) 창설, 영국의 국교

1560년경, 스코틀랜드, 칼빈의 개혁주의 존 낙스가 도입함

존 칼빈의 제네바도 칼빈의 국가 교회

말 그대로 온 유럽은 종교개혁 당시에도 전체가 국가 교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점을 유의해서 보아야 한다.

마16:16, 18, 베드로의 믿음 고백 위에 예수님 십자가 처형,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신약 교회가 세워짐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다는 사람들 조심해야 한다. 개혁 신학 하는 사람들

사도들 특히 사도 바울 바나바 등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교회들에 보내는 서신서,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기록됨

계시록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런 성경 말씀들을 읽을 때 과연 한 나라의 왕이나 교회의 수장이라 불리는 교황이 한 국가의 교회

전체를 총괄한다는 교리나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라, 목회 서신을 보라.

단 한 군데에서도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중세 시대 전체주의 시스템의 교회는 상상해 볼 수도 없다.

국가의 수장이 혹은 교회의 수장이 한 국가의 국교를 지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어떻게 국교를 지정할 수 있나? 다른 것은 안 되고.

어거스틴이 성경을 영해하여 이런 제도의 이론적 근간을 마련했지만 그 역시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 교회 밑에서 살았다. 즉 어거스틴 이전에도 이미 국가 교회가 존재하였다.

이 말은 AD 90년경 요한 계시록이 기록된 시점 이후의 어느 시점에 교회 안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기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가 사라지고 대신 국가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생겼음을 뜻한다.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도, 사도들도, 바울도, 마지막의 요한도 이러한 전체주의 독재 국가 교회란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작품인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인류를 멸하려는 마귀의 작품이다.

마귀는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 고후11:13-15

자,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답: AD 313년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은 치명적인 독약: 천주교, 칼빈, 루터 등의 국가 교회의 태동> 어떻게 국가 교회가 생겼는가? 이것을 알아야 칼빈과 루터 등 종교개혁자들의 국가 교회 사상을 파악할 수 있다.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이신칭의는 알았지만 어거스틴에게서 배운 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하여 국가 교회를 하려 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의 구원론, 교회론을 따르면 안 된다. 칼빈주의가 바로 그런 것들을 가르치므로 우리는 그 이론에 반대한다.

초대교회 이후 콘스탄틴까지

초대 교회 이후 콘스탄틴 시대까지 어떤 일이 생겼을까?

이교도 국가인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에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사람들과 함께 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땅에 신약 교회를 세우셨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대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자신의 백성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알기 원하면 사도행전을 읽기 바란다. 이때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더하여졌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 큰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이루셨다.

성령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기독교는 초원의 불길처럼 전 세계를 휩쓸었다. 기독교는 산을 에워싸고 대양을 건너갔으며 왕들을 떨게 하였고 폭군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계를 뒤집어엎었다! 실로 그들의 메시지와 그들의 영은 권능으로 충만하였다(행17:6).

그러나 여러 해가 가기 전에 몇몇 사람들은 성령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 위에 앉아 왕 노릇하기 시작했다. 계2:6, 15에는 니콜라당(Nicolaitans)이라는 이단이 나온다. 그리스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니콜라당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성도들 위에 군림하여 성도들을 통치하려는 자들이다. 신약 교회가 생기자마자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는 제사장 성직자 계급의 무리가 생겼으며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자들의 교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신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아직도 구약시대의 종교로 남아 자기들의 성직자를 '제사장'(priest)이라 부르며 성직자 계급주의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초기 사도들 시대에서와 같이 영적인 방법과 진리로 성도들을 치리하지 않고 자기들의 사상과 방법으로 치리하며 스스로 성령님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때 성도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유3-4).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생겼나니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 온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당시 기독교는 널리 퍼지면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황제숭배를 반대한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짓되게 고소를 당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고문당하고 사자 굴에 던져졌으며 화형대에서 죽임을 당하며 순교하였다. AD 65년경의 극악무도한 네로 황제부터 AD 311년의 디오클레티아누스와 갈레리우스까지 10명의 황제들 기간에 극심한 핍박이 있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와 그의 사위 갈레리우스(AD 303-311): 이때가 최악의 박해시기, 아폴로 신전에서 제사 드릴 것 강요, 교회들은 무너지고 성경은 불태워짐, 교역자 투옥됨, 기독교인들의 권리 정지

<https://blog.naver.com/jswoo001/222357578368>

(*) 위키 백과의 증언: 기독교 박해는 역사적으로 서력기원 1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른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믿음 때문에 유대교의 유대인에 의해 또 초기 기독교가 확산된 지역의 다수를 통제하던 로마인에 의해 박해를 받았다. 4세기 초(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 종교의 형태가 합법화되었으며(기독교 공인) (기독교는) 마침내 로마 제국의 국교회가 되었다.

즉 기독교는 여러 곳으로 전파되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 뒤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밀라노 칙령 (*) 밀라노 칙령: 313년 2월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1세와 리치니우스가 밀라노에서 회담하고 같은 해 6월에 발표한 칙령이다.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교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박해 시대에 몰수되었던 교회의 재산이 모두 반환되었고, 그리스도 교도를 속박하던 법률도 모두 폐지하였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와 융합하는 방향으로 결정적인 일보를 내디뎠다는 점에서 밀라노 칙령은 역사의 전환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고교생을 위한 세계사 용어사전, 즉 이것은 엄밀히 말해 기독교 공인이 아니라 기독교 승인이다.

콘스탄틴과 국가 교회의 시작

로마가 세계를 아우르는 제국이 되면서 도처에서 밀려드는 이교도들과 그들의 문화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황제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 당시 이러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가장 교묘하게 이룬 사람이 바로 기독교를 공인한 것으로 알려진 (*) 콘스탄틴 황제 (Constantine, 콘스탄티누스 1세, 272-337년)이다. 그는 306-337년까지 재위한 중기 로마 황제로서 동방 정교회는 (*)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여 '성 콘스탄티누스'라 부른다.

세속 역사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 로마 군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치세는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그는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하여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끝내고 사실상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공인했다. 그는 또한 교회의 수장으로서 325년에 제1차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여 기독교의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 그는 330년에 공식적으로 비잔티움(터키의 이스탄불)을 로마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정하였고 그가 죽자 비잔티움은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의 콘스탄티노플로 개명되었다.

콘스탄틴의 기독교 승인 이후로 교회의 주교들(감독들)은 높은 명예를 얻게 되었으며 교회도 세상의 인정을 받고 강한 권력을 쥐게 되었다. 황제는 호의를 보이면서 교회에서 가장 큰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교회 공회 등 주재, 이로써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하게 되기보다는 이 세상 제도의 한 부분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교회가 이러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비싼 값을 치러야만 했고 기독교와 이교도들의 이교주의(샤머니즘, 신비주의 등) 사이에는 많은 타협이 이루어졌다(국교가 되었으므로). 타락한 국가 교회는 이교도들의 풍습에 근거한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각종 우상 숭배, 제사장 체계, 교황, 추기경, 교부, 연옥, 면죄부, 유아 세례 등 도저히 성경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가증한 것들을 강제로 교회에 부과하기 시작했다(타협과 배교).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교회는 자기들의 범주 안에 거하려 하지 않는 자유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여 참 성도들을 화형이나 수장 등 각종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했다. 이단이란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이다. 중세 암흑시대에는 국가 교회인 천주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 받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

세속 역사가들과 천주교 사관을 가진 교회 역사가들이 한목소리로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을 찬양하지만 우리는 그가 행한 일을 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의 기독교 진흥 정책은 다분히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 수많은 내전을 거쳐 권력을 잡게 된 콘스탄틴에게 자신의 권좌를 위협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 로마 황제는 교회의 권위 내지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임명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인간이 그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음을 분명히 하려 하였다. 이로써 국가 교회에서 황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국가와 교회의 수장이 되어 권위를 보장받게 되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국가 교회'를 국가 체제의 이상적인 모델로 보았다. 반면에 교황들은 세상 군주들을 교황권 아래 두고 다스리는 '교회 국가'(Church State)를 이상적인 모델로 보았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지상의 평화가 유지되어야만 하며 국가가 교회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였고 오직 '교회 국가'만이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실 '국가 교회'나 '교회 국가'는 신권통치라는 측면에서 같다고 할 수 있다. 황제든 교황이든 국가의 수반이 되어 국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혹독한 속박 속에 가두기 때문이다.

콘스탄틴의 개종과 업적

콘스탄틴과 그의 군대가 로마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소위 ‘밀비안 다리 전투’로 알려진 전투에 직면해야 했다. 그 당시 관습에 따라 그는 희생 짐승의 내장을 보고 점을 치던 하루스피스라는 사람들의 조언을 구했는데(겔21:21) 신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 자기가 그 전투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점괘를 얻었다. (*) 그러나 그가 후에 말한 것처럼 환상 또는 꿈에서 그에게 십자가가 나타났으며 “이 표적을 갖고 정복하라.”는 말이 있었다. 그 다음 날인 주후 312년 10월 28일 그는 십자가가 달린 깃발을 내세우며 진격했고 그 결과 그 전투에서 승리했으며 그의 적을 패배시켰고 드디어 개종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콘스탄틴의 십자가 환상은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역사가들은 이 이야기를 수집하면서 유일하게 이 이야기의 증거 혹은 권위를 유세비우스(Eusebius of Caesaris, 265-340)가 지은 <콘스탄틴의 생애>에 두었다. 유세비우스는 이단인 오리겐의 추종자로서 로마 정권에 아부하며 권력을 누린 어용학자이다. 그래서 현시대 학자들은 콘스탄틴에 대한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유세비우스’(Eusebius) 항목

또한 콘스탄틴이 실제로 환상을 보았다 해도 과연 우리는 그 환상을 준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평화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교도 황제에게 십자가를 나타내는 군기를 만들고 그 표적으로 사람을 정복하고 죽이도록 지시했다 말인가?

만일 그 환상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콘스탄틴의 개종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사실 그의 개종은 의심스러운 것이다. 설령 그가 그 시대의 교회 행습들과 관련해서 많은 것을 제정했다 할지라도 그가 성경적 의미에서 참다운 개종 혹은 회심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분명한 사실이 많이 있다. 역사가들은 그의 개종이 그 시대의 표준에 의한다 할지라도 명목상의 개종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가 참다운 회심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회심 후 그가 몇 차례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는 심지어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을 죽였다. 성경은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한다(요일3:15).

콘스탄틴은 미네르비나를 첫째 아내로 두었고 그녀를 통해 크리스푸스라는 아들을 얻었다. 그의 둘째 아내는 파우스타인데 그녀를 통해 그는 세 딸과 두 아들을 두었다. 크리스푸스는 뛰어난 군인으로 그의 아버지의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만 니케아 공회가 열린 직후인 주후 326년 그는 자기 아들 크리스푸스를 사형에 처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자기의 둘째 아내인 파우스타와 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상 이것은 파우스타의 고소 내용이였다. 파우스타는 그의 첫째 아내의 아들 크리스푸스를 그런 방법으로 몰아내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위에 앉히려 했다! 그러나 콘스탄틴의 어머니는 그를 설득하여 사실은 그의 아내 파우스타가 그의 아들에게 몸을 바친 것으로 믿게 했으며 그래서 결국 콘스탄틴은 자기 아내 파우스타를 펄펄 끓는 목욕탕 속에 넣고 질식사시켜 죽였다. 이런 일이 있을 즈음에 그는 자기 누이의 아들을 태형으로 죽였고 누이의 남편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는 목 졸라 죽였다. 이처럼 잔인한 이야기를 읽고 나면 이런 황제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믿기 어려울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온통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콘스탄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고 십자가 처형을 폐지하고 로마에서 그토록 잔인하게 행하던 박해도 중지시켰다. 그러나 과연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을까, 아니면 정치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했을까? <카톨릭 백과사전>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몇몇 주교들은 궁전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심지어 황제를 거룩한 존재인 하나님의 천사로 높여 찬양했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늘에서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콘스탄틴이 기독교에 호의를 베풀 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동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그는 자기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한 약삭빠른 폭군으로 간주될 수 있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4권, p.300, ‘콘스탄틴’ 항목

유명한 역사가 두란트가 콘스탄틴에 대해 내린 결론도 위의 진술과 거의 같다.

콘스탄틴의 회심은 참된 것이었는가? 과연 그것은 종교적인 신앙 행위였는가, 아니면 정치적인 지혜의 극치였는가?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그는 그리스도인의 예배에 필요한 의식에 거의 순응하지 않았다....그는 자신의 통치 기간 중 주교들을 자신의 정치 조력자로 취급하였다. 그는 주교들을 소집해서 공회를 주재하였고 무엇이든지 대다수가 일치하는 의견을 따르도록 강요하였다. 참된 신자라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후에 정치가가 되어야 하는데 콘스탄틴의 경우는 그 반대였다. 기독교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다. <문명의 역사: 카이사르와 그리스도>, p.655-656

극심한 박해가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콘스탄틴은 잘 알고 있었다. 기독교인들과 이교도들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 제국이 분열되자 그는 기독교와 이교도들의 종교를 혼합하여 제국에 필요한 통일된 힘을 형성시킬 필요가 있음을 직시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콘스탄틴의 기독교는 혼합물이었다. 비록 그가 이교 신전들로부터 자기의 형상을 제거하고 자기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황제의 신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로마 카톨릭 교황의 호칭인 '최고 승원장'(Pontifex Maximus) 지도자로 불린 그는 이교 예배를 돌보고 계속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330년 콘스탄티노플의 봉헌식에서도 그는 반은 이교도 의식을, 반은 기독교 의식을 사용했다. 태양신 마차가 시장에 진열되었으며 그 위에 십자가가 놓였다. 콘스탄틴이 만든 동전들 중 어떤 것들은 십자가를 지니고 있지만 마르스나 아폴로를 나타내는 것들도 있었다.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이교도들의 마술적 방식을 신봉하고 이로써 농작물을 보호하고 질병을 고치려 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심지어 <카톨릭 백과사전> 안에 잘 지적되어 있다. 콘스탄틴의 방법 즉 혼합주의 개념은 분명히 로마 카톨릭 주의가 발전되고 재물을 늘리며 부유하게 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었다.

콘스탄틴은 죽을 때에 비로소 유세비우스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까지 그가 세례를 받지 않은 이유는 세례를 통해 모든 죄가 제거되는데 죽기 오래 전에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은 이후의 모든 죄를 처리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거스틴과 국가 교회

콘스탄틴이 세운 '국가와 교회의 일치'는 결국 구약시대의 '신정정치'(Theocracy)로 회귀하는 것이었다. 신정정치란 신성한 주권을 갖는 신이 임명한 대리자에 의한 정치를 말하며 '신권정치'(神權政治)라고도 한다.

콘스탄틴과 그 이후의 로마 황제들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신정정치를 구현하려 하였으며 바로 이를 위해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의 황제인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세상 왕국들까지 다스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통치 모델을 완성하였다. 어거스틴의 '국가 교회' 사상은 1000년 이상 중세 시대를 지배하다가 16세기에 이르러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도 세력을 떨치며 신정국가를 세우는 데 초석이 되었다.

'선진국들의 정교 관계'라는 글에서 이범성 교수는 제정일치(祭政一致) 혹은 정교일치(政教一致)의 국가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구약시대의 전통은 제정이 일치되거나 적어도 정교가 분리되지 않은 형태를 취했지만 신약시대 복음 전도자들의 전통은 정교가 분리된 형태를 취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그대로 제자들의 의견이 되었고 정부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바울의 말도 정교 유착이 아니라 정교 분리(국교 지정 No!)를 의미했다. 그러나 기독교가 확산되던 4세기 초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그의 손자 테오도시우스는 기독교를 국교화했고 이로써 정교유착(신정정치) 시대가 왔다.

(*) 종교개혁을 맞으면서 로마 카톨릭 교권에 대한 민족 국가들의 반대는 정교분리가 아니라 정교일치의 새로운 형태를 발전시켰을 뿐이다. 그것은 교황과 황제의 제국적 정교일치를 개신교 주교들과 왕

혹은 성주들의 정교일치로 전환한 모양에 불과하다. 여전히, 더욱 밀접하게 교회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했고 국가는 교회의 인정을 필요로 하였다. 루터는 독일에서 정부의 권력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정부와 교회의 선한 역할 분담론을 선전했으며 칼빈은 스위스에서 교회의 적극적인 정부 활동을 장려했다. 한편 헨리 8세의 수장령을 통한 영국 국교회의 탄생은 로마 교황청 대신에 정부와 더욱 밀착된 정교일치를 가져왔다. 종교개혁은 정교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형태의 정교유착에 불과하다.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63256>

콘스탄틴과 어거스틴을 거치면서 신정 정치 모델이 확립된 이후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유럽의 모든 국가는 오직 카톨릭 교회만을 국가의 교회로 인정하였고 천주교 외의 다른 믿음은 모두 이단 교리로 정죄받았다. 반면에 동유럽은 정교회(Orthodox Church)가 국가 교회가 되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루터교 역시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삼국의 국가 교회가 되었고 칼빈의 장로교는 나스에 의해 스코틀랜드의 국가 교회가 되었으며 헨리 8세가 세운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는 잉글랜드의 국가 교회가 되고 말았다. 루터나 칼빈, 츠빙글리 등이 이룬 ‘종교개혁’(Reformation)은 말 그대로 로마 카톨릭 종교의 틀 안에서 항거하며 개혁을 이루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래서 이들이 세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학은 거의 대부분 카톨릭 교회의 것들을 답습하고 있다(유아 세례, 성직자 계급 체계, 예배당의 성전화(聖殿化), 카톨릭 교회와의 에큐메니컬 종교통합 등). 사실 역사는 인간의 종교가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적인 목사, 교회 혹은 성도들을 조심해야 한다. 종교는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교단 신학과 교회나 목사의 가르침을 성경의 진리 위에 둔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며 결국 이들은 죽을 때까지 종교 생활을 하다가 정죄를 받게 된다. 우리 성도들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늘 살피는 ‘성경 신자’(Bible believer)가 되어야 한다. 유일하게 그것만이 종교의 틀에서 우리를 구출할 수 있다. 21세기에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는 국가에 사는 우리로서는 국가 교회에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국가가 지정해 주는 교회에만 다녀야 하고 거기서 지정해 주는 믿음만을 따라야 하는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1000년 이상 지속된 중세 암흑시대에 양심의 자유를 찾기 위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성경대로 살고자 애를 쓴 무리들이 있어서 결국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통해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었음에 우리는 큰 감사를 표해야 할 것이다.

콘스탄틴의 국가 교회 확립 이후로 약 1400년 만에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및 결사의 자유를 허락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버리며 국가 교회와 투쟁해서 얻은 고통의 산물이다.

국가 교회를 반대한 사람들

국가 교회가 대두되자 이것이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국가 교회 신정 정치 반대, 국교 지정 반대를 주장하면서 신약 성경에 있는 지역 교회 즉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눈에 드러나게 되었다.

즉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

1. 국가 교회: 구약식 신정 정치, 전체주의 독재, 왕, 주교, 황제 등이 수반, 천주교, 개신교
2. 신약 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 국교 같은 것은 안 된다. 신약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한다.

이들은 누구일까? 국가 교회를 주장하고 옹호하던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들로부터 이단 소리를 들은 사람들, 국가와 교회의 분리, 유아 세례 반대,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침례, 그런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

기독교의 참된 역사(*):

주후 3세기에는 전 로마제국에서 노바티안들이 일어났다. 이들 역시 유아세례의 죄악을 폭로하며 교회의 순수성을 외쳤다. 이들은 그 순수성으로 인해 후에 ‘순수한 자들’이라는 뜻을 지닌 카타리들이 되었다. 그 뒤 4세기 초에는 아프리카에서 도나티스트들이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외치며 일어났다. 또한 7세기 경에는 타우루스 산지에서 폴리시안들이 초대 자유교회의 맥을 이으며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역시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침례와 그런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을 주장했다. 그 뒤 자유교회는 12세기경의 왈덴시스들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들은 알프스 계곡에서 바른 성경을 붙들고 오직 성경만이 최종 권위임을 외치면서 천주교회와 분리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불가리아와 보스니아에서는 보고밀이라는 이름의 자유교회가 천주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으면서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다. 한편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는 폴리시안의 뒤를 이은 알비젠시스들이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들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위클리프의 후에; 롤러드

그 이후 루터, 칼빈, 츠빙글리의 시대에는 재침례교도들(메노나이트와 침례교도)

(*) 개신교 이전의 성경 신자들

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영혼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국가 교회가 빼앗으려 했던 것이 영혼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이 칼빈주의와 침례성도들의 차이

천주교, 루터교, 칼빈주의자들 국가 교회(국교 인정, 자유 의지 박탈). 침례성도들 신약 교회(국교 불인정, 자유 의지 인정)

다음 시간, 인류가 국가 교회를 벗어나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는가?